

한국인이 호주인과 만났을 때 - 새 이민자의 호주사회로의 융합

지역사회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호주 현지사회에 잘 융합하고 현지의 문화, 관습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자들은 호주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혹은 문화와 풍습의 차이로 현지에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어떤 행동들은 현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카스(CASS)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호주의 문화, 가치관, 법률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빨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에 걸쳐 "주간 에티켓" 컬럼을 게재,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호주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예절이나 법규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본 컬럼을 위해 특별히 삽화를 그려준 프랜시스 리(Francis Lee) 호주 국민훈장(OAM) 수훈자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관습 6 음식 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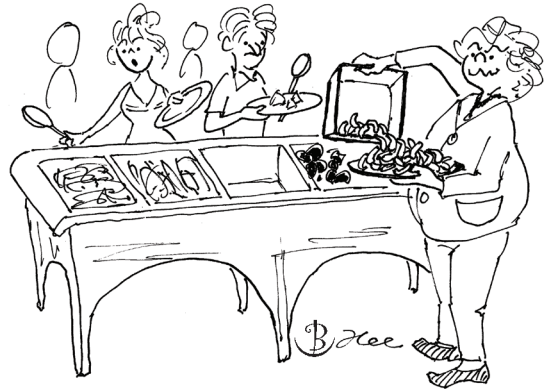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동서양간에 사회적 관습이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행사에서 제공되는 오전 다과(Morning Tea)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접시째로 가져가거나 남은 음식을 싸가서는 안 됩니다.

모닝티에 나오는 우유는 차나 커피에 넣어 마시기 위한 것이지 음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 컵씩 따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부페음식을 먹을 때에도 "일단 많이 담고보자"는 생각으로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담아 결국에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겨(leftover) 낭비(wastage)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행사에서는 현지 식습관 문화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This project is funded by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stering Integration Grant Scheme Program"